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차원

이경성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친밀한 대인관계에 적합한 귀인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두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귀인하는 내용을 알아내고, 귀인 측정방법들을 비교하였다. 결혼한 남녀 338명(남: 189, 여: 149)을 대상으로 얻은 귀인 자료를 내용분석해서 183개의 소범주를 얻었다. 소범주 별 빈도분석 결과,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모두 행위자귀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 삼자/환경/자극귀인, 자기귀인, 그리고 양자공동귀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인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즉 행동의 원인을 직접 기술하는 방법과 행동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기술하게 한 자료에서 귀인내용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얻은 귀인내용의 일치율을 계산하였다. 두 방법으로 얻은 귀인내용의 일치율은 64%여서 행동의 원인을 직접 기술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귀인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배우자 행동의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차원으로 요약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얻은 귀인 가운데 반응 빈도가 높은 70개 귀인내용을 추출하여, 69명에게 의미가 유사한 귀인내용끼리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다차원분석해서 3차원을 얻었으며, 2개 양극 형용사척도를 이용하여 해석했다 (stress=.07, $R^2=.96$). 이 3차원들 가운데 제 1차원은 '자기 혹은 배우자-자기와 배우자 이외' 차원($R^2=.82$), 제 2차원은 '배우자-배우자 이외' 차원($R^2=.62$) 및 제 3차원은 '양자공동-양자공동 이외' 차원($R^2=.53$)으로 해석되었다. 귀인내용을 군집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차원분석에서 얻은 차원들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및 장차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들이 배우자가 보인 행동적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귀인내용을 알아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는 부부들이 배우자가 보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귀인하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귀인내용들을 토대로 귀인내용들을 소수의 집약된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귀인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미 대륙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귀인과정의 연구들(예; Kelley, 1967, 1973;

Jones & Davis, 1965; Jones & McGillis, 1976; Weiner, 1986)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의 발생 원인을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유럽 사회심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때 각 문화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의 영향이 반영된다고 주장한다(Jaspers, 1981). 이 관점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발생된 행동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관계의 성질을 규정하는 독특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귀

인의 내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사회에서 부부관계가 유지된 역사와 문화의 배경, 현재 부부의 상대적 지위, 현 지위의 안정성 지각, 및 합법성 지각 등에 따라서 부부간의 행동에 대한 귀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양자를 중심으로 핵화된 부부관계가 전형이 되는 사회와 비교할 때 부부 각자의 친가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는 부부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칙뿐만 아니라 행동의 귀인내용 역시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귀인하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다루는 연구들을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귀인범주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귀인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친밀한 관계 상황에 적절한 귀인분류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개인 행동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전된 기존의 귀인범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귀인을 예로 들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내외귀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내적 귀인으로 행위자의 내적 요인을, 외적 귀인으로 행위자의 외적 요인을 측정한다. 그러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구분법을 사용할 경우 내외귀인의 효과가 외적 귀인에 포함되는 상대방, 외적 상황, 및 제 삼자의 영향 가운데 어떤 요인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 세 귀인 범주들은 귀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감정이나 기대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 내외귀인차원을 친밀한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관계에서 독특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수 있다. 귀인을 분석하는 단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다라도 관계를 구성하는 양자가 한 단위가 되는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관계수준의 귀인분석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수준의 귀인분석만을 적용하는 분류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개인수준에서는 상대방귀인이 외적 귀인이 되

지만, 양자관계를 분석의 단위로 보면 내적 귀인이 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원인이 되는 양자 공동귀인은 개인수준의 귀인분석체계로 보면 어느 한 극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귀인을 기존의 내외귀인분류체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친밀한 관계에서 귀인을 다루는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의 내외귀인분류가 친밀한 양자관계의 연구에는 적절치 않음을 인정한다(예; Fincham, 1985). 그러나 구체적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들은 배우자 행동의 내외귀인을 측정하면서 내적 극단에는 행위자를 두고 외적 극단에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신이나 배우자 이외의 타인, 그리고 외적 상황요인 가운데 해당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Fincham & O'Leary, 1983). 그런가 하면 자기, 배우자 및 외적 상황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거나(Holtzworth-Munroe & Jacobson, 1985), 자기와 상대방을 양극으로 둔 한 문항으로 내외귀인을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Fletcher, Fincham, Cramer, & Heron, 1987). 이처럼 귀인을 분류하는 체계에 관해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귀인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체계화하고 일관된 이론을 제안하는 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안정귀인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다라도, 내외귀인을 다루었을 때 나타나는 유사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행동과 달리 대인관계에서는 안정 - 불안정적 원인일지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인인지 상대방 원인인지, 혹은 공동의 원인인지에 따라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토대로 귀인차원들을 요약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적합한 귀인차원체계를 정비하는 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로서 부부관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각되

는 귀인내용들을 알아내어서 친밀관계에 적합한 귀인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두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조사연구를 통해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흔히 나타나는 귀인의 내용을 알아내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귀인내용들 가운데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가려내어서 귀인을 분류하는 차원을 알아내고자 한다.

연구 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

대인관계에서 귀인차원의 토대가 되는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살펴본 몇 개의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행동의 귀인내용을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이경성·한덕웅·강혜자의 연구(1995)를 들 수 있다. 이경성 등(1995)은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59개 일화로 제시하여, 이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자유방응으로 얻어서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오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행위자귀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개인 행동의 귀인 상황과 달리,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부정적 태도 등 행위자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을 다룬 이른바 대인귀인(interpersonal attribution: Newman, 1981) 범주가 행동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용어는 행위자의 성격이었으며, 그 다음은 상대방과 친해서, 둘이 싸워서 등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나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용어들이었다. 이 연구는 관계가 중심이 되는 대인상황에서는 기존의 내외 구분 외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대인귀인 범주와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양자공동귀인 범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대학생이고, 또한 일반 대인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행동들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행동사건들의 귀인분류체계로 일반화하기에는

우리가 있다. 한편 한덕웅과 이상옥(1988)이 한국 대학생의 우정관계 형성과 와해를 다룬 중단연구에서도 양자공동귀인이나 대인귀인에 속하는 내용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대인관계 연구에서는 개인 행동상황에서의 귀인분류와는 다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견해(예, Newman, 1981; Fincham, 1985)나 필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Orvis, Kelley 및 Butler(1976)는 친밀한 양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귀인의 차이를 조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1쌍의 1년 이상 연애한 사람들과 20쌍의 결혼했거나 동거 중인 사람들을 합쳐서 모두 41쌍에게 자신과 상대가 서로 달리 귀인하는 행동의 예를 들고 그 행동의 원인을 적게 했다. 이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내용분석한 결과, 귀인 차이를 보이는 13개의 중요한 원인범주들이 추출되었다. 이 범주들에는 행위자의 특성이나 습관 및 상태와 같은 행위자요인과 상황이나 환경요인, 그리고 행동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특성과 행동 이외에도, 대인귀인 범주에 속하는 원인들이 포함되었다. Orvis 등(1976)의 연구에서 양자공동귀인은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연구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행동과 그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Orvis 등(1976)의 연구는 실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행동의 귀인을 다루어서 외적 타당도를 높힌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귀인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한정해서 원인들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여러 대인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귀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 1에서는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실제 발생한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귀인내용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귀인내용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추론한다고 가정해서 귀인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생각하도록 하거나 특정 행동이 발생했다고 상상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귀인을 유도

한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Wong & Weiner, 1981; Holtzworth- Munroe & Jacobson, 1985)은 이 방법으로 귀인을 다룰 경우 간편하게 귀인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동의 원인 추론을 강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귀인한 결과와는 다른 원인을 기술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행동적 사건을 생각하도록 한 다음 이 행동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적게 하여, 이 자료에서 귀인반응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방법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 경험되는 생각과 느낌을 적도록 한 자료를 통해서 귀인반응을 추출하므로 간접 측정방법이라 하며, 전자의 방법은 직접 귀인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귀인의 직접 측정방법(Holtzworth-Munroe & Jacobson, 1985)이라고 지칭한다.

직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귀인 자료가 간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자료에 비해서 인위적인지의 여부는 두 측정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Holtzworth-Munroe와 Jacobson(1985)은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측정방법과 간접 측정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귀인 자료를 얻어서, 두 결과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직접 측정방법에서 얻은 귀인반응들을 각각 “고통유지(distressing maintaining)”, “관계향상(relationship enhancing)” 및 “중립(neutral)” 범주로 구분하고, 간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자료 가운데 귀인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위의 세 범주에 넣어서 두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가 유사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방법으로 얻은 귀인내용들의 일치도가 48%에서 79%의 범위를 보여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얻은 귀인의 내용이 통계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Holtzworth-Munroe와 Jacobson이 설정한 세 범주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귀인내용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 측정방법과 직접 측정방법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두 측정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귀인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 세부 범주에 따라 내용분석하여 이 결과들을 비교할 필

요가 있다. 연구 1에서는 이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연구 1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귀인하는 내용들을 알아내고, 행동사건의 원인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는 직접 측정방법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각이나 느낌을 열거하도록 해서 이 가운데 귀인내용을 추출하는 간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이 조사는 결혼한 남녀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1997년 3월과 4월에 실시되었다. 조사지의 일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근무하는 결혼한 남녀 300명에게 직접 배부한 후 기입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및 전주시의 대학생에게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주도록 하여, 질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이 질문지를 작성한 후 직접 우송하도록 하는 우편방향을 통해서 얻었다. 총 338부가 회수되어 67.6%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질문지의 구성 및 절차: 질문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8쪽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질문지의 첫 쪽에는 최근 6개월 이내 배우자의 행동 가운데 매우 좋았던 행동과 매우 나빴던 행동을 각각 하나 이상씩 최대 5개까지 생각나는대로 기술하게 했다(행동 순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매우 나빴던 행동을 먼저 기술하고 매우 좋았던 행동을 기술하게 하는 질문지도 제작하여 각각 반 수가 되도록 했다). 다음 쪽에서는 첫 쪽에서 기술한 매우 좋았던 행동과 매우 나빴던 행동 별로 맨 처음 적은 행동을 다시 기술하게 하고,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으로 이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얻었다. 간접 측정에서는 본인이 적은 배우자의 행동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나 기분을 모두 적게 했다. 간접 측정이 다 끝난 후에는 다시 배우자가 그 행동을 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게 해서 직접 측정방법으로 귀인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나이와 결혼기간을 적도록 했다.

표 1. 결혼기간, 성별, 연령별 조사 대상 수

결혼기간	무응답	5년 내	6 - 10년	11 - 15년	16 - 20년	21 - 25년	26 - 30년	전 체
남	4	80	28	15	19	32	11	189
여	12	46	35	29	9	14	4	149
전 체	16	126	63	44	28	46	15	338

연 령	30세이전	31 - 40세	41 - 50세	51 - 61세	전 체
남	50	67	43	29	189
여	48	72	28	1	149
전 체	98	139	71	30	338

자료의 분석: 조사 대상이 기술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반응들을 내용분석하였다. 간접방법으로 귀인을 측정된 자료의 경우 측정 자료로부터 귀인반응들만을 추출하여 내용분석하였다.

(1) 간접 측정자료로부터 귀인반응 추출: 이 연구의 첫 필자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한 사람이 행동이 발생했을 때 유발된 생각이나 느낌들을 적은 자료에서 귀인을 나타내는 진술들을 추출했다. 귀인은 진술문 가운데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이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로 정의했다. 귀인반응은 행동빈도에 대한 기술(예: 남편/아내는 항상 그런 행동을 한다)이나, 감정과 반응(예: 아내/남편이 고맙다), 및 미래지향반응(예: 앞으로 잘 해주어야겠다) 등으로 분류되는 자료와 구분했다. 간접 측정자료 가운데 귀인의 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평정자 간 일치율은 77%였으며, 귀인 진술로 두 평정자의 판단이 일치한 귀인만을 추후 분석에서 사용했다.

(2)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으로 얻은 귀인 자료의 내용분석: 이 연구의 첫 필자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한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귀인 용어를 분류했다. 초기 귀인 용어의 분류틀로는 이경성 등(1995)의 틀을 사용했으며, 조사 대상의 반응을 토대로 세부 범주를 신설하거나 수정하였다. 귀인 용어는 크게 ①행동한 당사자인 배우자, 즉 행위자귀인, ②배우자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신, 즉 자기귀인, ③양자공동귀인 및 ④양자관계 이외 귀인(제 삼자, 환경/상황, 자극/대상)의 4개 대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귀인 탐색 과정을 기술한 범주(예: 혹시 외도가 아닐까?)를 두어 앞

의 4범주와 구분하였다. 각 귀인 용어들을 의미가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고, 그 가운데 빈도가 많은 반응들을 중심으로 183개의 소범주를 두었다. 이 소범주들을 의미 전달이 가능한 보다 큰 범주로 묶어서 중간 범주(예: 정서, 상태, 특성 등)를 두었으며, 최종적으로 얻은 귀인분류틀은 표 1-2와 같다. 두 평정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사 대상의 반응을 내용분석해서 해당 유목 별로 빈도를 기록했으며,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합의과정을 거친 후에 그 빈도를 기록했다.

결과 및 논의

내용분석 결과의 전반적 경향: 최종 분류틀에 따라서 귀인내용 별로 빈도를 산출한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반응빈도(전체 1,187개)로 볼 때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모두 행위자귀인이 가장 많았고(전체 69%; 긍정적 행동 74%, 부정적 행동 63%) 귀인내용들도 더 세분되었다. 다음으로 제 3자/환경/자극귀인이 많았으며(전체 14%; 긍정적 행동 9%, 부정적 행동 19%), 그 다음이 행동의 대상이 된 자기귀인(전체 10%; 긍정적 행동 10%, 부정적 행동 9%)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양자공동귀인 범주에 해당하는 귀인내용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전체 2%). 이 결과를 기존의 내외귀인에 따라서 해석하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관찰자는 행위자의 행동을 행위자의 외적 요인(31%)보다 내적 요인(69%)에 더 많이 귀인하는 기본귀인오류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수집된 귀인내용들을 단순히 기존의 내외귀인 구분에

표 2.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내용들의 분류틀

행위자 귀인

1. 행위자의 정서
 - a. 행위자의 정서: 기분 좋아서, 기분 나빠서
 - b. 나에게 대한 정서: 사랑해서, 사랑이 식어서, 관심/생각/배려, 불만, 무관심, 미안해서
 - c. 가족에 대한 정서: 애정, 생각/걱정/배려 중시, 애정 결여, 생각부족, 편애, 미안함
2. 행위자의 상태
 - a. 심리적 상태: 철이 들어서, 철이 없어서, 열등감, 스트레스, 심심해서 등
 - b. 신체적 상태: 나이, 피로,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마셔서,
 - c. 기타 상태: 변함 등
 - d. 나와 관련된 상태: 나를 의지해서, 이해해서, 믿어서, 존중/인정해서, 아껴서, 걱정해서, 무시해서, 이해 못해서 등
 - e. 가족 관련 상태: 가족/가정에 대한 관심 변화
 - f. 대인관련 상태
3. 행위자의 특성
 - a. 좋은 성격/안정적 속성: 좋은 성격, 성실, 자상, 다정다감, 인내심, 착함, 책임감 강함, 능력
 - b. 나쁜 성격/안정적 속성: 무능력, 고지식, 답답, 이기적, 속이 좁다, 외골수, 다혈질, 까다로움, 책임감 없음, 계획성 없음, 꼼꼼함 등
 - c. 습관/버릇: 좋은 습관, 나쁜 습관/기본대로 행동, 잘못 들여진 습관,
 - d. 가족 관련 특성: 호도
4. 행위자의 신념/판단/생각
 - a. 행위자의 생각: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중립적 생각(의무..)
 - b. 나에게 대한 생각: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 c. 가족에 대한 생각: 긍정적 생각, 사위로서의 책임감 등
5. 행위자의 의도
 - a. 행위자의 의도: 좋은 의도, 경쟁/과시 의도, 긴장/스트레스 해소 등
 - b. 나와 관련된 의도: 이익/즐거움을 주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의지하고 싶어서 등
 - c. 가족 관련 의도: 가정/가족에 이익을 주고자, 가족의 화목/평화를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자식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등
6. 행위자의 선호
 - a. 행위자의 타인 선호: 친구/타인/아이들을 좋아해서
 - b. 행위자의 취미/취향, 습 선호
 - c. 나와 관련된 선호: 나에게 잘해주는 것 선호
7. 행위자의 행동
 - a. 행위자의 행동: 자기 몸을 너무 사랑
 - b. 나에게 대한 행동: 나의 기분에 맞춰 행동함
8. 행위자의 반성: 잘못 반성

자기 귀인

9. 나의 정서
 - a. 나의 정서: 기분 나빠서
 - b. 행위자에 대한 무관심/불만
10. 나의 상태
 - a. 심리적 상태: 내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 b. 신체적 상태: 피곤, 몸이 안 좋아서, 신체적 매력/비매력
 - c. 기타 상태: 변화, 힘들어서
 - d. 행위자 관련 상태: 무시해서, 신뢰하지 않아서,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11. 나의 특성
 - a. 성격/안정적 속성: 능력, 속좁다 등
 - b. 습관/버릇: 평소에 잘해서, 술을 자주 마셔서, 실수를 잘해서
12. 나의 신념/판단/생각
 - a. 나의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
13. 나의 행동
 - a. 나의 행동: 열심히 살, 의무를 다함, 욕 등
 - b. 행위자 관련 행동: 행위자 칭찬, 행위자에게 잘함, 나의 잘못
 - c. 시댁/처가에 대한 행동: 시댁식구들에게 잘해서, 처가 식구들에게 못해서 등
 - d. 가족에 대한 나쁜 행동: 자녀들 챙기지 않음
14. 내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
 - a. 나의 영향력 - 직접적: 내가 원해서, 나의 말/주장/요구 때문에
 - b. 나의 영향력 - 간접적
15. 나의 선호
16. 나의 반성
 - a. 나의 잘못을 반성

양자귀인

17. 공동의 상태
 - a. 신체적 상태: 피곤, 나이
 - b. 기타 상태: 믿음, 생각차이
18. 공동의 특성
 - a. 관계, 환경 차이
 - b. 성격 차이
19. 공동의 생각/판단/신념
 - a. 부부의 공동 책임
20. 공동 관련 의도
 - a. 시간 활용/관계 개선 의도, 동등함을 보여주려고
21. 공동의 행동
 - a. 부적 행동: 화를 내서

관계 이외 귀인

22. 제 삼자 귀인
 - a. 가족: 아이가 귀여워서, 부모의 도움, 자식들의 잘못, 시댁/처가 식구들의 잘못
 - b. 가족 이외 제 3자: 친구들의 선호, 행동, 제 3자
23. 환경/상황
 - a. 안락적 환경: 시댁 관련 안락적 환경, 사회/직장 생활, 바쁜 생활, 가정교육/가정환경, 가족 관련 환경 등
 - b. 불안정 환경: 동료/친구들과 어울림, 일시적 상황, 시간, 분위기
24. 자극/대상
 - a. 사고, 술, 경제적 문제, 물건, 일, 기타 자극

귀인 탐색 과정

따라서 분류할 경우 행위자의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극단에 자기귀인과 환경귀인 및 제 삼자귀인이 모두 포함된다.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외적 극단에 속하는 이 귀인 범주들은 상대방 평가, 관계만족 및 이혼의도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귀인요인들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내외귀인분류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귀인내용을 분류하면 관계에서 독특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귀인정보의 영향을 적절히 연구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내외귀인의 어느 한 극단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귀인인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양자공동귀인이 지적된 결과는 개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된 기존의 내외귀인으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행동사건의 원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반응빈도가 높은 구체적 귀인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원인은 행위자의 자신에 대한 애정과 관심/생각/배려(18%)였다. 이 결과로부터 기존자들은 배우자가 주로 자신에 대한 애정과 배려 때문에 긍정적 행동을 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원인은 배우자의 안정적 성격/속성이어서, 배우자의 긍정적 성향이 긍정적 행동의 기반이 된다고 지각하였다. 세 번째로 많이 지적된 귀인은 행위자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생각/걱정/배려(5%)였다. 이 결과는 결혼한 당사자들의 개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서구문화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행위자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 때문에 긍정적 행동을 했다고 지각하는 상호의존적 관점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소위 개인주의적 서구 문화에서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보는 관점과 달리, 집합주의적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를 배우자나 가족과의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양자귀인이나 가족에 대한 배려 등이 주된 귀인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문화에서 자기를 자기와 타인이 함몰된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최상진(1989)의 견해,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공 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이수원(1994)의 주장, 그리고 대인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한덕용

(1996)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적 성격/안정적 속성(16%), 나에 대한 애정 결여/무관심(3%), 및 나에 대한 무시(3%)였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애정 결여가 지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경성 등(1995)의 연구나 Passer, Kelley, 및 Michella(1978)의 다차원분석 결과와 일치된다. 이경성 등(1995)의 연구에서 두 사람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귀인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오감이었다. 또한 Passer 등(1978)은 Orvis 등이 자유반응을 통해서 수집한 귀인들을 사용하여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정적 행동의 주된 귀인차원을 알아보았는데, 행위자 입장과 관찰자 입장에서 모두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상대방에 대한 정적 태도 - 부정 태도 차원에서 추론함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들로부터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기존의 내외 분류로는 해석이 어려운 대인귀인 범주가 행동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배우자의 안정적 성격/속성이 지적된 점도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귀인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Orvis et al., 1976; Passer et al., 1978)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이 연구들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도 함께 다루었는데 상대방 행동의 원인 추론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행동 원인을 추론할 때에는 행위자의 의도나(Passer et al., 1978) 외적 상황과 행동 자체의 바람직스러움(Orvis et al., 1976)이 주된 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행위자의 특성이 지적된 결과는 관찰자 입장에서 상대방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자귀인, 자기귀인, 양자공동귀인 및 제 삼자/대상/환경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귀인내용을 긍정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 별로 나누어 살

표 3.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내용

귀인 내용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행위자 귀인	213(73)	226(74)	439(74)	186(66)	185(61)	371(63)	399(70)	411(68)	810(69)
(1) 행위자의 정서	1(0)	3(0)	4(0)	12(4)	2(0)	14(2)	13(2)	5(0)	18(1)
행위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	1(0)	1(0)	-	-	-	-	1(0)	1(0)
행위자의 질투	-	-	-	3(1)	-	3(0)	3(0)	-	3(0)
행위자가 기분이 좋아서	1(0)	2(0)	3(0)	-	-	-	1(0)	2(0)	3(0)
행위자가 기분이 나빠서	-	-	-	9(3)	2(0)	11(1)	9(1)	2(0)	11(0)
(2) 나에 대한 정서	61(21)	61(20)	122(20)	28(9)	21(7)	49(8)	89(15)	82(13)	171(14)
행위자의 나에 대한 사랑	33(11)	33(10)	66(11)	2(0)	-	2(0)	35(5)	33(5)	68(5)
행위자의 나에 대한 애정 결여/무관심/배려 안함	1(0)	-	1(0)	6(2)	11(3)	17(2)	7(1)	11(1)	18(1)
행위자의 나에 대한 애정 상실	-	-	-	2(0)	8(2)	10(1)	2(0)	8(1)	10(0)
행위자가 내가 안스러워서	5(1)	1(0)	6(1)	-	-	-	5(0)	1(0)	6(0)
행위자의 나에 대한 관심/생각/배려	20(6)	23(7)	43(7)	8(2)	-	8(1)	28(4)	23(3)	51(4)
행위자의 나에 대한 미안함	1(0)	4(1)	5(0)	1(0)	-	1(0)	2(0)	4(0)	6(0)
행위자의 나에 대한 불만	1(0)	-	1(0)	6(2)	2(0)	8(1)	7(1)	2(0)	9(0)
(3) 가족에 대한 정서	10(3)	38(12)	48(8)	7(2)	8(2)	15(2)	17(2)	46(7)	63(5)
행위자의 가족에 대한 애정(사랑)	4(1)	17(5)	21(3)	-	1(0)	1(0)	4(0)	18(2)	22(1)
행위자의 가족에 대한 애정 결여	-	-	-	1(0)	3(0)	4(0)	1(0)	3(0)	4(0)
가족 관련 기타 정서	1(0)	1(0)	2(0)	1(0)	-	1(0)	2(0)	1(0)	3(0)
행위자의 가족 생각/걱정/배려(안정 숙성)	4(1)	12(3)	16(2)	-	1(0)	1(0)	4(0)	13(2)	17(1)
행위자의 가족 중시하는 마음	1(0)	5(1)	6(1)	1(0)	-	1(0)	2(0)	5(0)	7(0)
행위자의 가족에 대한 생각 부족	-	-	-	4(1)	1(0)	5(0)	4(0)	1(0)	5(0)
가족에 대한 미안함	-	1(0)	1(0)	-	-	-	-	1(0)	1(0)
자식 편에	-	-	-	-	2(0)	2(0)	-	2(0)	2(0)
행위자의 가족/가정에 대한 관심의 우호적 변화	-	2(0)	2(0)	-	-	-	-	2(0)	2(0)
(4) 심리적 상태	3(1)	8(2)	11(1)	8(2)	10(3)	18(3)	11(1)	18(2)	29(2)
행위자의 부정적 심리 상태	-	1(0)	1(0)	2(0)	3(0)	5(0)	2(0)	4(0)	6(0)
행위자의 중립적 심리 상태	2(0)	-	2(0)	2(0)	-	2(0)	4(0)	-	4(0)
행위자가 철이 들어서/성숙	1(0)	6(1)	7(1)	-	-	-	1(0)	6(0)	7(0)
행위자가 심심해서	-	1(0)	1(0)	-	1(0)	1(0)	-	2(0)	2(0)
행위자의 스트레스 때문	-	-	-	4(1)	6(1)	10(1)	4(0)	6(0)	10(0)
(5) 신체적 상태	4(1)	6(1)	10(1)	16(5)	13(4)	29(4)	20(3)	19(3)	39(3)
행위자의 나이	3(1)	5(1)	8(1)	2(0)	-	2(0)	5(0)	5(0)	10(0)
행위자의 피곤	1(0)	-	1(0)	9(3)	10(3)	19(3)	10(1)	10(1)	20(1)
행위자가 몸이 안 좋아서	-	-	-	5(1)	2(0)	7(1)	5(0)	2(0)	7(0)
행위자가 술을 마셔서	-	1(0)	1(0)	-	1(0)	1(0)	-	2(0)	2(0)
(6) 나와 관련된 상태	28(9)	20(6)	48(8)	25(8)	16(5)	41(7)	53(9)	36(5)	89(7)
행위자가 나 이해 못함	1(0)	-	1(0)	12(4)	2(0)	14(2)	13(2)	2(0)	15(1)
행위자가 나를 의지해서	3(1)	-	3(0)	1(0)	-	1(0)	4(0)	-	4(0)
행위자가 나를 무시해서	2(0)	-	2(0)	6(2)	13(4)	19(3)	8(1)	13(2)	21(1)
행위자가 나를 이해해서	7(2)	7(2)	14(2)	-	-	-	7(1)	7(1)	14(1)
행위자가 나를 믿어서	7(2)	2(0)	9(1)	1(0)	-	1(0)	8(1)	2(0)	10(0)
행위자가 나를 존중/인정	7(2)	3(0)	10(1)	-	-	-	7(1)	3(0)	10(0)
행위자가 나를 아깝	-	3(0)	3(0)	5(1)	-	5(0)	5(0)	3(0)	8(0)
행위자가 나를 걱정해서	1(0)	3(0)	4(0)	-	-	-	1(0)	3(0)	4(0)
나와 관련된 nondirectional state	-	2(0)	2(0)	-	1(0)	1(0)	-	3(0)	3(0)
(7) 가족 관련 상태	-	-	-	-	1(0)	1(0)	-	1(0)	1(0)
행위자가 자녀 문제를 아내에게만 떠맡김	-	-	-	-	1(0)	1(0)	-	1(0)	1(0)
(8) 대인관련 상태	-	-	-	-	1(0)	1(0)	-	1(0)	1(0)
행위자의 대인관련 상태 ;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	-	-	-	1(0)	1(0)	-	1(0)	1(0)
(9) 기타 상태	5(1)	1(0)	6(1)	1(0)	4(1)	5(0)	6(1)	5(0)	11(0)
행위자의 마음이 변화	-	-	-	3(1)	-	3(0)	3(0)	-	3(0)
(10) 긍정적 성격/안정적 숙성	41(14)	43(14)	84(14)	2(0)	2(0)	4(0)	43(7)	45(7)	88(7)
행위자의 긍정적 성격/안정적 숙성	13(4)	5(1)	18(3)	1(0)	1(0)	2(0)	14(2)	6(0)	20(1)
행위자가 좋은 성격/사람	1(0)	8(2)	9(1)	-	-	-	1(0)	8(1)	9(0)
행위자가 착함	11(3)	4(1)	15(2)	-	-	-	11(1)	4(0)	15(1)
행위자가 책임감 강함	4(1)	1(0)	5(0)	1(0)	-	1(0)	5(0)	1(0)	6(0)
행위자가 성실	4(1)	3(0)	7(1)	-	-	-	4(0)	3(0)	7(0)
행위자가 자상	5(1)	10(3)	15(2)	-	1(0)	1(0)	5(0)	11(1)	16(1)
행위자가 다정다감	2(0)	3(0)	5(0)	-	-	-	2(0)	3(0)	5(0)
행위자가 인내심	1(0)	1(0)	2(0)	-	-	-	1(0)	1(0)	2(0)
(11) 부정적 성격/안정적 숙성	6(2)	5(1)	11(1)	49(17)	47(15)	96(16)	55(9)	52(8)	107(9)
행위자의 부정적 성격/안정적 숙성	1(0)	1(0)	2(0)	15(5)	11(3)	26(4)	16(2)	12(1)	28(2)
행위자의 급한 성격	1(0)	-	1(0)	2(0)	3(0)	5(0)	3(0)	3(0)	6(0)
행위자가 이기적/개인적/자기중심적	1(0)	-	1(0)	6(2)	9(2)	15(2)	7(1)	9(1)	16(1)
행위자가 속이 좁다(안정적 성격)	-	-	-	1(0)	3(0)	4(0)	1(0)	3(0)	4(0)
행위자가 외롭수	-	-	-	1(0)	1(0)	2(0)	1(0)	1(0)	2(0)

표 3. 계속

취인 내용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전 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행위자가 다혈질	-	-	-	2(0)	2(0)	4(0)	2(0)	2(0)	4(0)
행위자가 권위자	-	-	-	2(0)	2(0)	-	2(0)	-	2(0)
행위자의 의처증	-	2(0)	2(0)	-	1(0)	1(0)	-	3(0)	3(0)
행위자가 까다로움	-	-	-	1(0)	1(0)	2(0)	1(0)	1(0)	2(0)
행위자가 무책임/책임감 없는 사람이어서?	-	-	-	2(0)	3(0)	5(0)	2(0)	3(0)	5(0)
행위자가 자기 주장 너무 강함	-	-	-	7(2)	1(0)	8(1)	7(1)	1(0)	8(0)
행위자가 고지식/보수적	-	-	-	2(0)	2(0)	4(0)	2(0)	2(0)	4(0)
행위자가 계획성이 없어서	-	-	-	2(0)	1(0)	3(0)	2(0)	1(0)	3(0)
행위자가 무뎠음	-	-	-	2(0)	-	2(0)	2(0)	-	2(0)
행위자의 성격 때문	1(0)	2(0)	3(0)	3(1)	2(0)	5(0)	4(0)	4(0)	8(0)
행위자가 탐욕	2(0)	-	2(0)	-	-	-	2(0)	-	2(0)
(12) 습관/버릇	2(0)	5(1)	7(1)	10(3)	15(5)	25(4)	12(2)	20(3)	32(2)
행위자의 좋은 습관/버릇	2(0)	2(0)	4(0)	1(0)	-	1(0)	3(0)	2(0)	5(0)
행위자의 나쁜 습관/버릇	-	1(0)	1(0)	3(1)	3(0)	6(1)	3(0)	4(0)	7(0)
행위자가 기본대로 행동	-	-	-	-	2(0)	2(0)	-	2(0)	2(0)
행위자의 잘못 돌려진 습관	-	1(0)	1(0)	4(1)	3(0)	7(1)	4(0)	4(0)	8(0)
행위자의 중립적 습관	-	1(0)	1(0)	-	1(0)	1(0)	-	2(0)	2(0)
행위자의 습관/버릇 때문	-	-	-	2(0)	6(1)	8(1)	2(0)	6(0)	8(0)
(13) 가족 관련 특성: 효도	2(0)	1(0)	3(0)	-	2(0)	2(0)	2(0)	3(0)	5(0)
행위자의 부모에게 잘해서/가족에게 잘해서	2(0)	1(0)	3(0)	-	2(0)	2(0)	2(0)	3(0)	5(0)
(14) 행위자의 능력	1(0)	2(0)	3(0)	-	-	-	1(0)	2(0)	3(0)
(15) 행위자의 무능력/자기 절제 못함	-	-	-	2(0)	5(1)	7(1)	2(0)	5(0)	7(0)
(16) 행위자의 생각	8(2)	4(1)	12(2)	4(1)	7(2)	11(1)	12(2)	11(1)	23(1)
행위자의 거부감적/보수적 생각	2(0)	1(0)	3(0)	2(0)	5(1)	7(1)	4(0)	6(0)	10(0)
행위자의 중립적 생각	1(0)	2(0)	3(0)	2(0)	2(0)	4(0)	3(0)	4(0)	7(0)
행위자의 종교적 신념	4(1)	1(0)	5(0)	-	-	-	4(0)	1(0)	5(0)
(17) 내에 대한 생각	-	-	-	1(0)	-	1(0)	1(0)	-	1(0)
가족에 대한 생각	1(0)	2(0)	3(0)	-	-	-	1(0)	2(0)	3(0)
행위자의 사위으로서의 의무감	-	2(0)	2(0)	-	-	-	-	2(0)	2(0)
행위자의 나 관련 나쁜 생각	-	-	-	1(0)	-	1(0)	1(0)	-	1(0)
행위자가 자녀 교육을 우선시 생각해서	1(0)	-	1(0)	-	-	-	1(0)	-	1(0)
(18) 나와 관련된 의도	16(5)	9(2)	25(4)	7(2)	2(0)	9(1)	23(4)	11(1)	34(2)
행위자가 나에게 이익/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	6(2)	5(1)	11(1)	2(0)	-	2(0)	8(1)	5(0)	13(1)
행위자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6(2)	4(1)	10(1)	1(0)	-	1(0)	7(1)	4(0)	11(0)
행위자가 나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	-	-	1(0)	1(0)	2(0)	1(0)	1(0)	2(0)
행위자가 내게 원하는 바가 있어서	3(1)	-	3(0)	2(0)	1(0)	3(0)	5(0)	1(0)	6(0)
자신이 신세대 아내임을 보여주려고	1(0)	-	1(0)	1(0)	-	1(0)	2(0)	-	2(0)
(19) 가족 관련 의도	20(6)	9(2)	29(4)	6(2)	4(1)	10(1)	26(4)	13(2)	39(3)
행위자가 가정/가족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	6(2)	2(0)	8(1)	1(0)	-	1(0)	7(1)	2(0)	9(0)
행위자가 가족의 화목/평화를 위해	10(3)	3(0)	13(2)	4(1)	-	4(0)	14(2)	3(0)	17(1)
행위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는/효도 의도	2(0)	2(0)	4(0)	-	-	-	2(0)	2(0)	4(0)
행위자가 자신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	2(0)	2(0)	1(0)	2(0)	3(0)	1(0)	4(0)	5(0)
행위자가 사부모에 대한 의무 원/자기위신 세우길 의도	2(0)	-	2(0)	-	2(0)	2(0)	2(0)	2(0)	4(0)
(20) 행위자의 의도	3(1)	7(2)	10(1)	6(2)	12(4)	18(3)	9(1)	19(3)	28(2)
행위자의 좋은 일 하려는 의도/말문을 위한 의도	1(0)	2(0)	3(0)	2(0)	-	2(0)	3(0)	2(0)	5(0)
행위자가 자기 과시/세면 유지를 위해서	-	1(0)	1(0)	-	4(1)	4(0)	-	5(0)	5(0)
행위자의 nondirectional intent	-	1(0)	1(0)	3(1)	6(1)	9(1)	3(0)	7(1)	10(0)
행위자의 긴장/스트레스 해소 의도	2(0)	3(0)	5(0)	1(0)	2(0)	3(0)	3(0)	5(0)	8(0)
(21) 나와 관련된 선호	-	1(0)	1(0)	-	-	-	-	1(0)	1(0)
행위자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좋아해서	-	1(0)	1(0)	-	-	-	-	1(0)	1(0)
(22) 행위자의 타인 선호	-	3(0)	3(0)	3(1)	7(2)	10(1)	3(1)	10(1)	13(1)
행위자가 친구, 타인을 좋아해서	-	-	-	1(0)	7(2)	8(1)	1(0)	7(1)	8(0)
행위자가 아이들을 좋아함	-	3(0)	3(0)	2(0)	-	2(0)	2(0)	3(0)	5(0)
(23) 행위자의 취미/취향 습 선호	1(0)	4(1)	5(0)	1(0)	10(3)	11(1)	2(0)	14(2)	16(1)
행위자의 취미/취향	1(0)	4(1)	5(0)	1(0)	3(0)	4(0)	2(0)	7(1)	9(0)
행위자가 습 선호	-	-	-	-	7(2)	7(1)	-	7(1)	7(0)
(24) 행위자의 행동	-	-	-	-	1(0)	1(0)	-	1(0)	1(0)
행위자가 자기 몸을 너무 사림(자기 중심적 행동)	-	-	-	-	1(0)	1(0)	-	1(0)	1(0)
(25) 내에 대한 행동	-	1(0)	1(0)	-	-	-	-	1(0)	1(0)
행위자가 나의 기본을 맞추어 행동함	-	1(0)	1(0)	-	-	-	-	1(0)	1(0)
(26) 행위자의 반성	1(0)	1(0)	2(0)	-	-	-	1(0)	1(0)	2(0)
(27) 코딩 곤란(예: 본능)	2(0)	-	2(0)	-	-	-	2(0)	-	2(0)

표 3. 계 속

귀인 내용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전 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기귀인	28(9)	35(11)	63(10)	28(9)	28(9)	56(9)	56(9)	63(10)	119(10)
(1) 나의 정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2(0)	1(0)	3(0)	-	-	-	2(0)	1(0)	3(0)
(2) 행위자에 대한 무관심/불만	1(0)	-	1(0)	3(1)	2(0)	5(0)	4(0)	2(0)	6(0)
(3) 심리적 상태 내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	-	-	1(0)	-	1(0)	1(0)	-	1(0)
(4) 신체적 상태 나의 피곤 나의 신체적 매력/非매력 나의 몸이 안 좋아서	2(0)	4(1)	6(1)	1(0)	1(0)	2(0)	3(0)	5(0)	8(0)
(5) 행위자 관련 상태 내가 행위자를 이해 못해서 내가 행위자를 무시/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행위자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서	-	-	-	7(2)	1(0)	8(1)	7(1)	1(0)	8(0)
(6) 기타 상태 내가 고생하나까/아침에 바빠서 내가 변해서 내가 힘들어 해서	1(0)	5(1)	6(1)	1(0)	1(0)	2(0)	2(0)	6(0)	8(0)
(7) 성격/안정적 속성 내가 밖에서 일하니까 속준다 내가 꼬지꼬지 따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	3(1)	2(0)	5(0)	-	-	-	3(0)	2(0)	5(0)
(8) 습관/버릇 내가 평소에 잘해서 내가 실수를 잘해서	1(0)	1(0)	2(0)	-	-	-	1(0)	1(0)	2(0)
(9) 나의 생각 내 생각이 합리적이어서 동료와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	1(0)	-	1(0)	-	1(0)	1(0)	1(0)	1(0)	2(0)
(10) 나의 영향력 - 직접적	1(0)	6(1)	7(1)	1(0)	-	1(0)	2(0)	6(0)	8(0)
(11) 나의 영향력 - 간접적	2(0)	3(0)	5(0)	-	2(0)	2(0)	2(0)	5(0)	7(0)
(12) 나의 선호 나의 술 선호	2(0)	-	2(0)	1(0)	1(0)	2(0)	3(0)	1(0)	4(0)
(13) 나의 행동 나의 행동,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잘못 나의 의무를 다함(살림 잘함) 나의 nondirectional 행동	3(1)	5(1)	8(1)	8(2)	11(3)	19(3)	11(1)	16(2)	27(2)
(14) 나의 능력	3(1)	-	3(0)	2(0)	-	2(0)	5(0)	-	5(0)
(15) 행위자 관련 행동 나의 행위자 칭찬 내가 행위자에게 잘해서	4(1)	4(1)	8(1)	1(0)	2(0)	3(0)	5(0)	6(0)	11(0)
(16) 시택/서가에 대한 행동 내가 시집 식구들에게 잘해서 내가 여자다운 행동 부실 내가 처자에게 못해서	2(0)	3(0)	5(0)	4(1)	1(0)	5(0)	6(1)	4(0)	10(0)
(17) 가족에 대한 행동 내가 자녀를 생기기 싫음	-	-	-	-	1(0)	1(0)	-	1(0)	1(0)
(18) 나의 잘못을 반성	1(0)	-	1(0)	3(1)	4(1)	7(1)	4(0)	4(0)	8(0)
(19) 당연/도리	3(1)	1(0)	4(0)	-	-	-	3(0)	1(0)	4(0)
공동 귀인	12(4)	5(1)	17(2)	7(2)	5(1)	12(2)	19(3)	10(1)	29(2)
(1) 신체적 상태 나이 피곤	-	2(0)	2(0)	2(0)	-	2(0)	2(0)	2(0)	4(0)
(2) 기타 상태 믿음 생각 차	5(1)	1(0)	6(1)	-	-	-	5(0)	1(0)	6(0)
(3) 관계, 환경 차이 관계 환경 차	-	1(0)	1(0)	4(1)	1(0)	5(0)	4(0)	2(0)	6(0)

표 3. 계 속

귀인 내용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전 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남	여	전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4) 성격 차이	1(0)	-	1(0)	-	3(1)	3(0)	1(0)	3(0)	4(0)
(5) 부부의 공동 책임	2(0)	-	2(0)	-	-	-	2(0)	-	2(0)
(6) 시간 활용/관계 개선 의도 부부의 공동 시간 활용/관계 개선 의도 나와 동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1(0)	1(0)	2(0)	1(0)	-	1(0)	2(0)	1(0)	3(0)
(7) 당연/당위	1(0)	2(0)	2(0)	-	-	-	1(0)	1(0)	2(0)
(7) 당연/당위	2(0)	-	2(0)	-	-	-	2(0)	-	2(0)
제3자/자극/환경 귀인	31(10)	25(8)	56(9)	51(18)	60(20)	111(19)	82(14)	85(14)	167(14)
(1) 가족 때문(아이, 부모, 시댁/처가) 가족, 상대; 아이가 귀여워서 가족, 행동;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가족; 자식들의 잘못 가족; 시댁/처가 식구들의 잘못	4(1)	1(0)	5(0)	5(1)	4(1)	9(1)	9(1)	5(0)	14(1)
(2) 가족 외 제 3자 친구가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 제 3자	4(1)	-	4(0)	-	-	-	4(0)	-	4(0)
(3) 시대 관련 안정적 환경(예: 시부모 모시고 사니까)	-	-	-	1(0)	2(0)	3(0)	1(0)	2(0)	3(0)
(4) 사회/직장 생활/바쁜 생활 사회/직장 생활(관련 - 안정/불안정 포함) 바쁜 생활	-	-	-	1(0)	2(0)	3(1)	1(0)	2(0)	3(0)
(5) 동료/친구들과 어울림	-	-	-	1(0)	2(0)	3(0)	1(0)	2(0)	3(0)
(6) 가정교육/가정환경/가족 관련 환경 가정교육/가정 환경 때문 가족 관련(부모/자녀) 환경	-	-	-	3(1)	2(0)	5(0)	3(0)	2(0)	5(0)
(7) 안정적 환경	1(0)	2(0)	3(0)	5(1)	1(0)	6(1)	6(1)	3(0)	9(0)
(8) 일시적 상황/시간/분위기 일시적 상황 시간 술 먹는 상황	3(1)	5(1)	8(1)	3(1)	7(2)	10(1)	6(1)	12(1)	18(1)
(9) 자극 사고 술 경제적 문제 불건 일 재수 없어서	2(0)	4(1)	6(1)	2(0)	3(0)	5(0)	4(0)	7(1)	11(0)
(10) 당연/도리	1(0)	1(0)	2(0)	1(0)	1(0)	2(0)	2(0)	2(0)	4(0)
귀인 탐색	4(1)	11(3)	15(2)	9(3)	22(7)	31(5)	13(2)	33(5)	46(3)
전 세	295(100)	302(100)	597(100)	289(100)	301(100)	590(100)	584(100)	603(100)	1187(100)

펴보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 긍정적 성격/속성, 및 가족에 대한 애정을, 부정적 행동에서는 배우자의 나쁜 성격/안정적 속성이나 자신에 대한 애정 결여 및 무시를 주된 원인으로 지각하였다.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으로 얻은 귀인반응의 비교: 직접 귀인을 유도하는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간접 측정방법과 직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귀인 자료를 최종 분류틀에 따라 내용분석한 결과가 서로 유사한지 일치율을 산출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법의 일치율이 64%였다. 이 결과는 두 측정 방

법으로 얻은 귀인 자료를 각각 “고통 유지”, “관계 고양” 및 “중립”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두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가 유사한지 알아본 Holtzworth-Munroe와 Jacobson(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단지 세 범주만을 사용하여 일치도를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80여 개의 구체적인 귀인분류틀을 근거로 귀인반응을 분류하여 두 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귀인의 일치도를 보았으므로 행동의 원인을 직접 적게 하는 직접 측정방법으로 얻은 귀인이 실생활에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귀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64%

의 높은 일치율은 동일한 피험자에게 간접방법과 직접방법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간접방법과 직접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귀인자료를 얻을 경우에 두 방법으로 얻어진 귀인반응들의 일관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장차 피험자간 설계로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에서 얻은 결과의 일치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귀인차원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추출된 배우자 행동의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사용하여 귀인차원을 추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에서 행동적 사건의 귀인차원을 살펴본 연구들은 극히 적다. 소수의 실증 연구들은 주로 다차원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귀인차원을 추출했는데(이경성·한덕웅·강혜자, 1995; Passer, et al., 1978), 이 연구들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귀인차원들 가운데 일부 차원들만 확인되었다. 예컨대, Passer 등(1978)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의 귀인차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대인귀인과 안정귀인이 중요한 귀인차원임이 확인되었다. 즉 사람들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 부정적 태도의 차원과, 한 극단이 행위자의 특성, 반대 극단이 상황 혹은 행위자의 상태로 이루어진 안정귀인의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필자의 선행 연구(이경성·한덕웅·강혜자, 1995)에서도 개인 행동상황과 달리 대인관계에서는 새로운 귀인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66명의 대학생에게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 사건들의 원인으로 대표적 귀인내용 70개를 용어의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해서 해석이 가능한 세 차원을 얻었는데, 제 1차원은 '좋다 - 나쁘다', 제 2차원은 '자기와 상대방 - 자기와 상대방 외', 그리고 제 3차원은 '행위자 - 양자'로 해석되어서 기존의 개인수준의 내외귀인 이외에 관계수준에서의 내외귀인분류

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부정적 행동에 국한되거나, 여러 대인관계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얻은 귀인을 다루는 연구에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원인으로 지각된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가려내고, 이 귀인들이 구성하는 귀인차원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대표적 귀인 용어의 선정: 연구 1에서 얻은 귀인 용어들 가운데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귀인 범주로 명명할 수 있는 용어들을 가려내서 대표적 귀인용어 70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귀인 용어를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 사용한 귀인 용어를 내용분석한 분류틀(표 1-3 참조)을 토대로 중간 범주들 가운데 원인 용어로 사용된 백분율이 5% 이상은 1개, 5 - 10%는 2개, 10 - 15%는 3개 소범주를 선택했으며, 이 때 소범주의 선택에서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가려냈다. 대범주 별로 피험자들이 귀인으로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행위자귀인의 경우에는 빈도가 3 이하인 범주는 선택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행위의 대상인 자기귀인과 양자공동귀인 및 관계 이외 귀인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빈도가 3 이하인 범주도 선택했다.

군집분석 및 다차원분석 자료의 수집과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70개 귀인 용어들을 카드 70장에 각각 적어서 대학원생 및 대학생 69명에게 제시하고, 귀인 용어들의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군집을 이루는 카드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어떤 범주든지 1개의 카드로 범주를 만들지 않도록 주시시켰다. 피험자들이 카드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 범주는 6개에서 15개의 범위였으며, 평균 10개 범주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귀인 용어들을 동일 군집으로 분류한 피험자들의 수를 사용하여 Kruskal(1964) 방법으로 귀인 용어들 상호 간의 비연합 측정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귀인 용어들 상호 간의 비연합 측정치로 70개 귀인 용어들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SPSS의

ALSCAL프로그램으로 다차원분석하였다. 또한 70개 귀인 용어들이 어떻게 범주화되는지 알아보고, 이 결과를 다차원 공간구조에 그려봄으로써 차원 해석에 도움을 받고자 군집분석하였다.

양극 형용사 척도에서 평점 자료 수집: 다차원분석한 결과의 해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70개 귀인 용어들을 24개의 양극 형용사 척도(7점 척도)에 평정하게 했다. 이는 70개 귀인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다. 24개의 양극 형용사에는 기존의 친밀관계 연구들에서 사용한 귀인차원척도와 필자의 대인관계 연구(1995)에서 사용한 척도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는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60명이 참가하였다.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24개 의미미분척도 각각에 대해서 70개 귀인 용어들을 별로 평균치들을 구했다. 이 평균치를 준거변인으로 두고 각 차원에서 70개 귀인 용어들의 좌표를 예언인으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회귀계수를 토대로 각 차원의 축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군집분석 결과: 70개 귀인 용어들이 어떻게 범주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연결법으로 군집분석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을 토대로 상위 4개 군집을 해석한 결과, 4개의 군집이 크게 귀인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가장 상위 위계에서는 관계 내적 요인과 관계 외적 요인의 두 군집을 이루었다. 관계 내적 요인은 크게 자기 군집과 배우자 군집, 및 자기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양자공동귀인 군집의 세 하위 군집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 군집과 자기 군집은 각각 원인으로 지각되는 사람의 내적 요인 군집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및 행동을 나타내는 대인귀인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대인귀인은 필자(1995)의 선행연구에서도 행위자, 상대방, 양자공동귀인 군집 이외에 사람 군집의 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된 바 있다. 한편 양자공동귀인 군집은 양자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귀인 용어들로 구성된 군집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귀인 용어들로 구성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양자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귀인 용어들로 구성된 하위군집에는 부부 사이의 의무나 책임 및 도리에 대해서 기술한 귀인 용어들이 포함되어서, 양자관계에서 상호 지켜야 할 도리나 의무귀인이 양자귀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부부사이의 책임이나 도리로 인한 행동이 양자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관계 외적 귀인 군집은 관계 외의 제삼자귀인 군집과 상황귀인 군집, 및 자극귀인 군집으로 나뉘었다.

요약하면, 부부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70개 귀인들은 의미 유사성과 상호연결관계로 볼 때 대체로 양자관계의 내적 귀인 군집인 배우자군집과 자기군집, 및 배우자와 자기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양자공동귀인 군집, 그리고 관계 외적 귀인 군집으로 범주화되었다.

다차원분석 결과: 70개 귀인내용들 간의 비연합치 행렬을 사용하여 ALSCAL로 다차원분석한 결과, 4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stress는 .05($R^2=.98$),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stress는 .07($R^2=.96$), 2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stress는 .14($R^2=.89$)였다. 3차원을 추출했을 때와 비교해서 4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설명 변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3차원 결과의 해석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해석했다. 귀인 용어들의 3차원 좌표들은 부록 1에, 이 결과를 각각 1-2차원, 2-3차원, 1-3차원 별로 좌표화한 그림은 그림 2, 3 및 4에 제시되었다.

각 차원의 의미 해석을 돕기 위해서 각 차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를 선정하여 그림에 포함시켰다. 이 척도들은 24개 양극 형용사 척도들에서 70개 귀인 용어들을 평정한 값과 다차원분석을 통해서 얻은 좌표치와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와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각 차원 좌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들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척도들을 귀인 용어들이 위치한 차원 공간 상에 축으로 넣었을 때 해석이 잘되는지 보았다. 축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선정된 척도들의 평균을 준거로 두고 각 차원에서의 좌표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얻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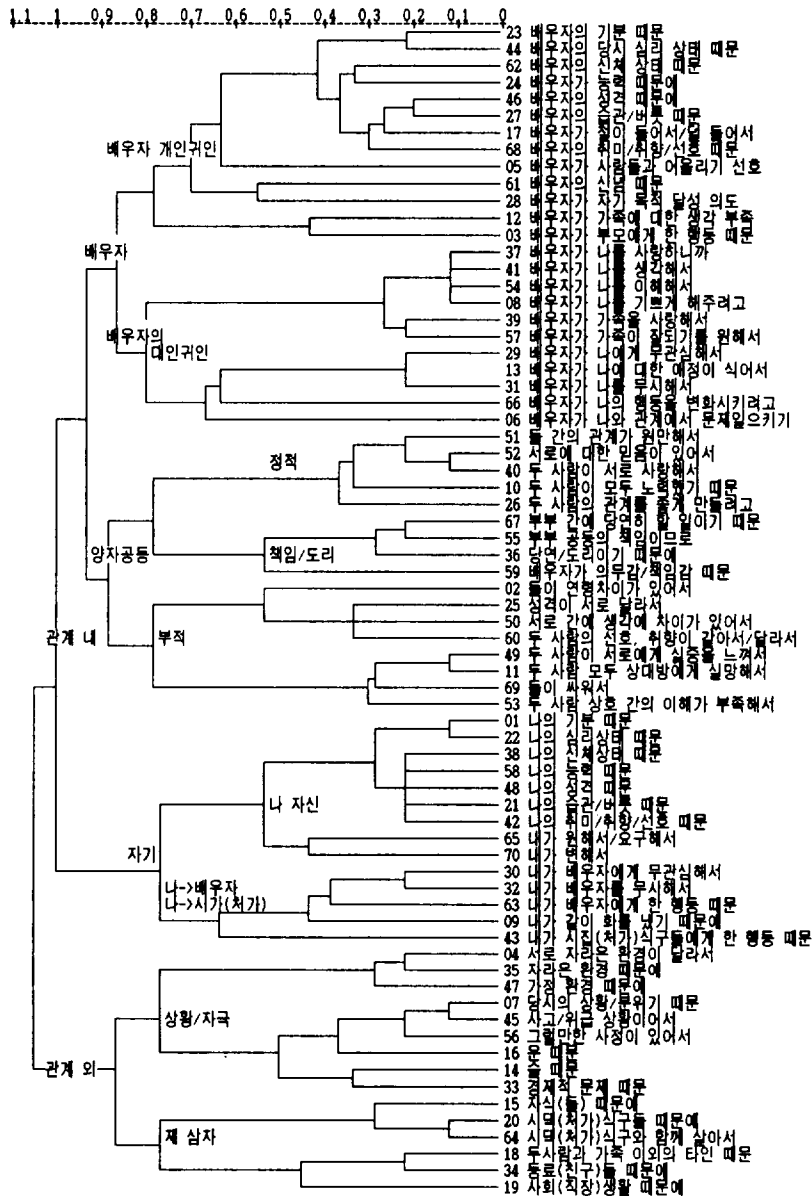


그림 1. 70개 귀인내용의 군집분석 결과

중다회귀계수를 토대로 각 차원 공간 상에 선정된 척도의 축을 그렸으며, 가장 해석이 용이한 척도를 기준으로 각 차원의 해석에 사용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제 1차원의 좌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양극 척도는 배우자-배우자와 자기 두 사람 모두($r=.33, p<.01$), 사람-상황($r=.61, p<.0001$),

배우자-상황/대상($r=.58, p<.0001$), 자발적-비자발적($r=.42, p<.001$), 배우자-배우자 외($r=.32, p<.01$), 사람-자극/대상($r=.61, p<.0001$), 배우자-자기 혹은 배우자 이외 다른 사람($r=.43, p<.001$), 자기 혹은 배우자-자기와 배우자 이외의($r=.90, p<.0001$), 사람-상황/자극($r=.67, p<.0001$) 및 자기-관계가 잘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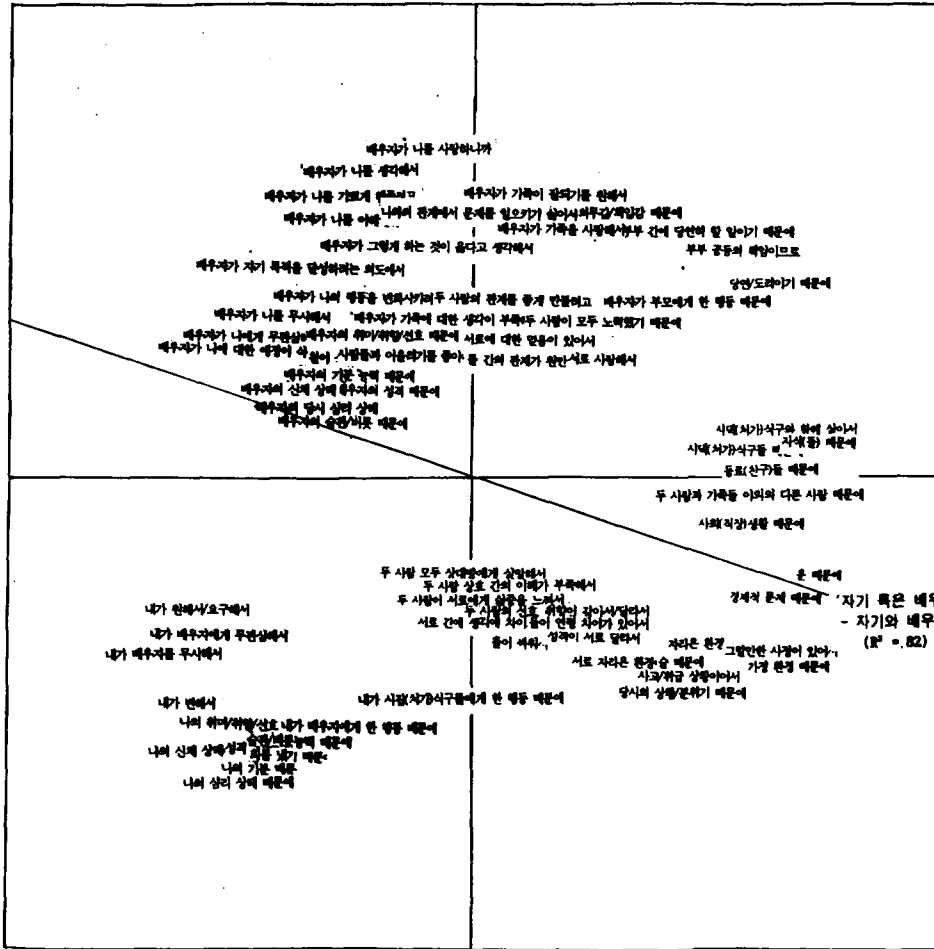


그림 2. 1차원(수평)과 2차원(수직)에서 70개 귀인 용어들의 배열

필요한 요인($r=.38, p<.01$) 척도였다. 이 가운데 상관 이 높은 '자기 혹은 배우자 - 자기와 배우자 이외' 척 도를 선정하여 축을 넣은 결과 해석이 용이하여서, 이 를 1차원 해석에 사용하였다. 1-2차원 상에서 귀인 용 어들을 좌표화한 그림 2로 1차원을 해석하면, 제 1차 원의 정적 극단에는 운, 경제적 문제, 가정 환경, 그럴 만한 사정, 당시의 상황/분위기, 사고/위급 상황, 및 술 등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부정 극단에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관심, 배우자가 나를 무시, 내가 원함/요구 함, 내가 배우자를 무시, 내가 배우자에게 무관심, 배 우자가 나에게 대한 애정이 식음, 배우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내가 변함, 배우자가 나를 기쁘게

해 주려 함, 및 배우자가 나를 이해함 등이 위치해 있 다. 양극에 놓여있는 용어들로 미루어 볼 때, 제 1차 원은 자기 혹은 배우자와 상황/자극이 주체로 등하 는 원인들이 극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제 1차원 은 '자기 혹은 배우자 - 자기와 배우자 이외' 차원 ($R^2=.82$)으로서 '양자관계의 내적 귀인 - 양자관계의 외적 귀인' 차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 2차원은 24개 형용사 짝 가운데 네 척도를 제외 한 대부분의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높은 상 관을 보인 척도는 좋은 의미 - 나쁜 의미($r=-.50, p< .0001$), 의도 - 비의도($r=-.77, p<.0001$), 결혼생활 전반 의 적용 - 결혼생활 일부의 적용($r=-.32, p<.01$), 배우

자 - 배우자와 자기 두 사람 모두($r=-.43, p<.001$), 사람 - 상황($r=-.38, p<.001$), 배우자 - 상황/구체적 대상($r=-.66, p<.0001$), 자발적 - 비자발적($r=-.56, p<.0001$), 칭찬받을만하다 - 비난받을만하다($r=-.49, p<.0001$), 통제가능 - 통제불가능($r=-.79, p<.0001$), 배우자 - 배우자 이외의($r=-.79, p<.0001$), 사람 - 자극/구체적 대상($r=-.37, p<.01$), 배우자 - 자기($r=-.82, p<.0001$), 배우자 - 자기 혹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r=-.62, p<.0001$), 긍정적 동기 - 부정적 동기($r=-.51, p<.0001$), 자기에 대한 배우자의 긍정적 태도 - 부정적 태도($r=-.38, p<.001$), 배우자의 책임 -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다($r=-.81, p<.0001$), 자기 혹은 배우자 - 자기와 배우자 이외의($r=-.22,$

$p<.07$), 사람 - 상황/자극($r=-.27, p<.05$), 자기 - 관계가 잘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r=.72, p<.0001$) 척도들이다. 이 가운데 상관이 높으면서 해석이 용이한 '배우자 - 배우자 이외' 척도를 2차원 해석에 사용하였다. 2-3차원 상에서 귀인용어들을 좌표화한 그림 3으로 2차원을 해석하면, 한쪽 극단에는 배우자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함, 배우자의 취미/취향/선호, 배우자가 가족이 잘되기를 원함, 배우자의 의무감/책임감, 배우자가 가족을 사랑함,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배우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및 배우자가 행위 대상인 자기를 생각함 등이 위치해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자기가 똑같이 화를 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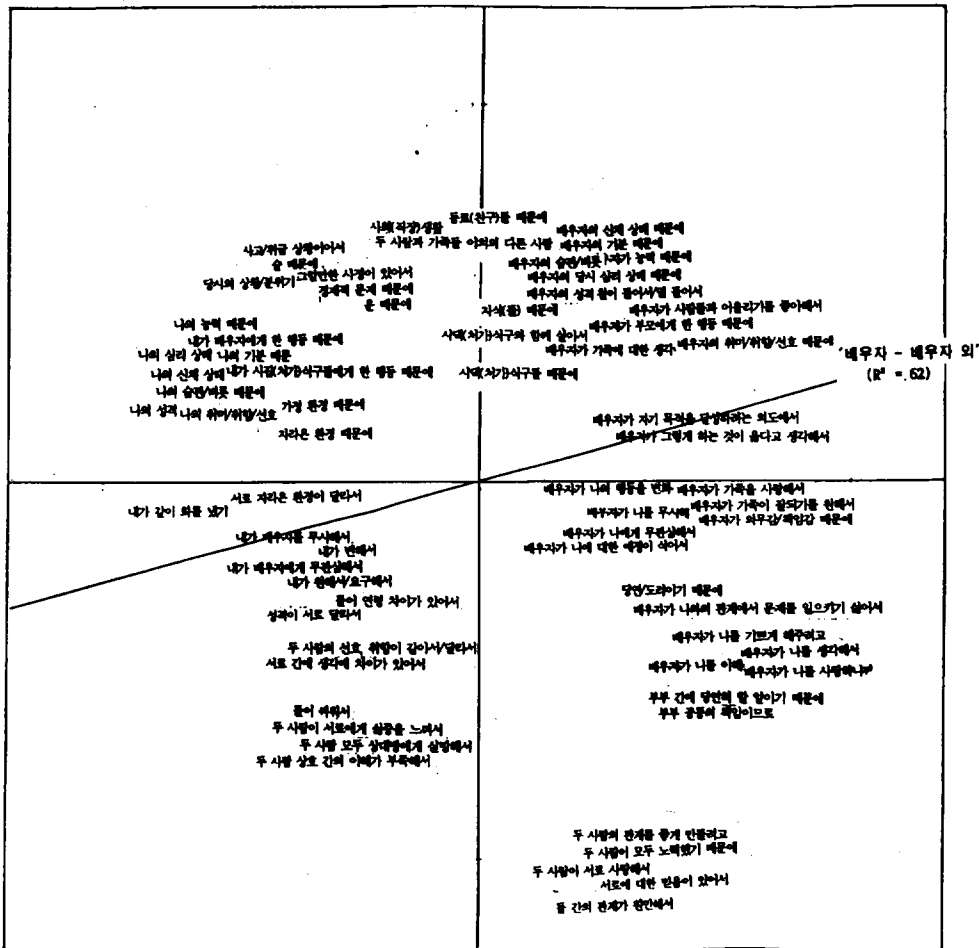


그림 3. 2차원(수평)과 3차원(수직)에서 70개 귀인 용어들의 배열

자기의 성격, 자기의 심리상태, 둘이 싸움, 자기의 습관/버릇, 자기의 취미/취향/선호, 자기의 신체 상태, 자기의 기분, 두 사람 상호간 이해 부족, 및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싫증 느낌 등이 위치해 있다. 배우자와 배우자 이외의 귀인내용들이 양극에 놓여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 2차원은 '배우자 - 배우자 이외' 차원($R^2=.62$)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 3차원의 경우, 좋은 의미 - 나쁜 의미($r=.28, p<.02$), 의도 - 비의도($r=.42, p<.001$), 결혼생활 전반의 적용 - 결혼생활 일부의 적용($r=.45, p<.0001$), 배우자 - 배우자와 자기 두 사람 모두($r=-.58, p<.0001$), 사람 - 상황($r=.36, p<.01$), 자발적 - 비자발적($r=.52, p<.0001$),

자기 혹은 배우자 단독 - 자기와 배우자의 상호작용($r=-.39, p<.001$), 칭찬받을만하다 - 비난받을만하다($r=.31, p<.01$), 통제가능 - 통제불가능($r=.30, p<.02$), 사람 - 자극/대상($r=.36, p<.01$), 긍정적 동기 - 부정적 동기($r=.26, p<.05$), 자기에 대한 배우자의 긍정적 태도 - 부정적 태도($r=.30, p<.02$), 두 사람 모두 - 두 사람 이외($r=.73, p<.0001$) 및 자기 - 관계가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r=-.44, p<.0001$) 척도들의 평정치와 상관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상관이 높은 '두 사람 모두 - 두 사람 이외' 척도를 선정하여 축을 넣은 결과 해석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이를 3차원 해석에 사용하였다. 제 3차원을 보면(그림 4 참조), 한쪽 극단에는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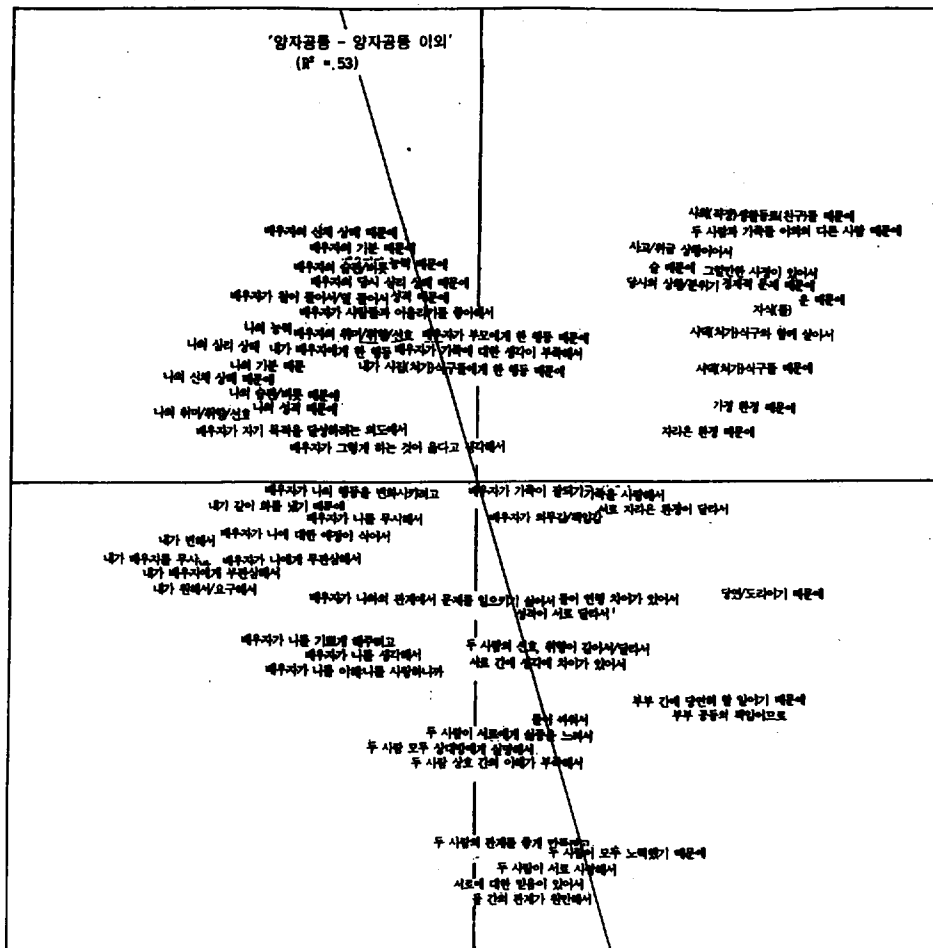


그림 4. 1차원(수평)과 3차원(수직)에서 70개 귀인 용어들의 배열

의 신체 상태, 배우자의 기분, 배우자의 능력, 동료(친구)들, 배우자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함, 배우자의 습관/버릇, 배우자의 당시 심리상태 및 두 사람과 가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치해 있다. 반면 반대쪽 극단에는 양자관계가 원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음, 두 사람이 서로 사랑, 두 사람 상호 간의 이해 부족,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실망, 두 사람이 모두 노력함, 및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싫증을 느낌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제 3차원은 '양자공동 이외 - 양자공동' 차원($R^2=.53$)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차원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제 1차원은 '자기 혹은 배우자 - 자기와 배우자 이외', 제 2차원은 '배우자 - 배우자 이외' 및 제 3차원은 '양자공동 이외 - 양자공동'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세 차원 모두 원인으로 지각되는 대상의 내외귀인 측면에서

해석되었다.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 결과의 비교: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보인 행동들의 대표적 귀인내용을 '자기 혹은 배우자 - 자기와 배우자 외', '배우자 - 배우자 외', 및 '양자공동 - 양자공동 이외'의 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의 귀인 용어들을 군집분석 결과로 얻은 7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면(그림 5 참조), 제 1차원(수평)의 한쪽 극단에는 관계 외적 귀인인 상황/자극귀인과 제 3차귀인 군집이 위치하고, 반대쪽 극단에는 관계 내적 귀인 군집 가운데 배우자귀인과 자기귀인 군집이 위치한다. 또한 1차원의 중간 위치에는 두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양자귀인 군집이 위치한다. 이로 볼 때 1차원을 '자기 혹은 배우자귀인 - 자기와 배우자 이외 귀인' 차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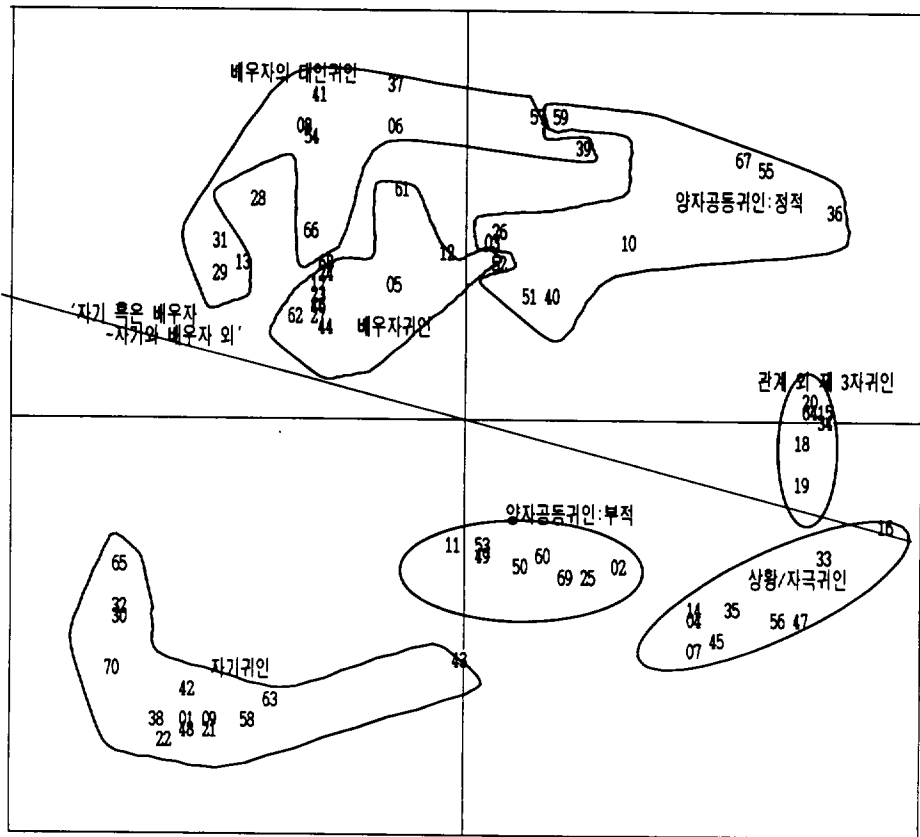


그림 5. 1차원 해석을 위한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 결과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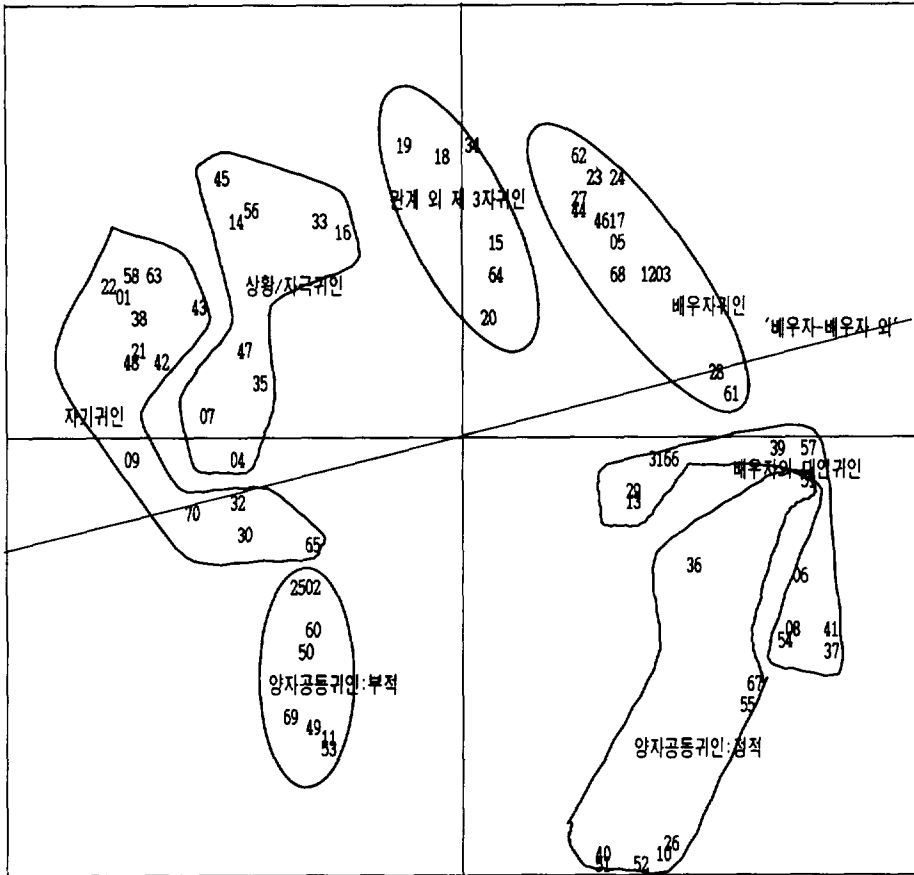


그림 6. 2차원 해석을 위한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 결과의 종합

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그림 3의 공간에 위치시킨 귀인 용어들을 군집분석 결과를 근거로 7개 군집으로 묶어서 해석하면(그림 6 참조), 2차원의 한쪽 극단은 대체로 배우자귀인 군집으로, 반대쪽 극단은 자기귀인, 양자공동의 부적 귀인, 및 상황/자극귀인 군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과는 다차원분석 결과의 2차원을 '배우자-배우자 이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단, 공동의 정적 귀인 군집 가운데 배우자의 의무감/책임감이 배우자귀인차원에 위치하는데, 이는 이 용어가 도리나 의무에 해당하는 다른 용어들과 함께 양자귀인 군집에 소속되긴 했으나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감안하면 제 2차원을 반영하는 용어로 해석되기 때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의 귀인 용어들을

군집분석하여 얻은 7개의 군집으로 묶어보면(그림 7), 제 3차원의 한쪽 극단은 양자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자기귀인, 배우자귀인 및 관계외적귀인의 제 삼자귀인과 상황/자극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다차원분석 결과의 3차원을 양자-양자 이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합 논의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대표적 귀인들은 '배우자-배우자 외', '자기 혹은 배우자-자기와 배우자 외' 및 '양자-양자 외' 차원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대체로 결혼한 사람들은 개인 행동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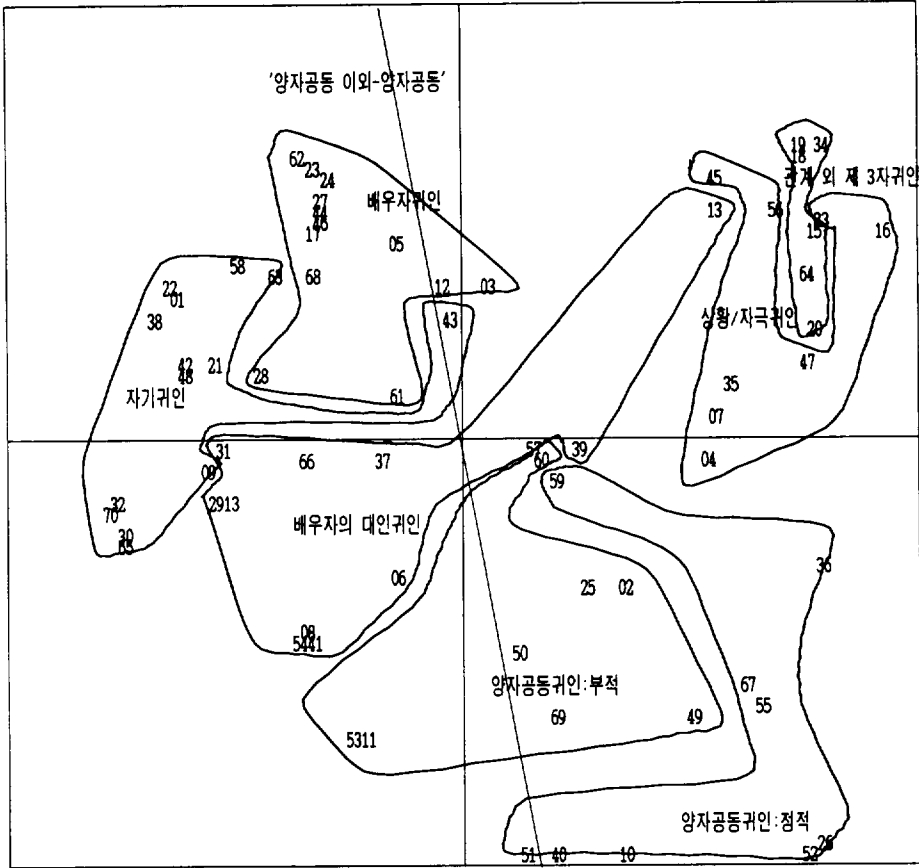


그림 7. 3차원 해석을 위한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 결과의 종합

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 내외귀인 구분 외에 양자관계 수준에서 귀인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문화권에서 부부들이 실제로 배우자의 행동을 설명할 때 원인으로 자주 지적한 내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타당한 귀인 요소를 추출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친밀한 대인관계에서는 개인 행동 상황에서의 귀인 연구와는 달리 기존의 내외귀인분류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주된 귀인내용을 알아본 연구(연구 1)와 이 대표적 귀인 용어들을 차원으로 요약한 연구(연구 2)를 통해서 확

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귀인 이론에서 내외귀인에 해당하는 '배우자-배우자 이외' 차원 외에 '자기 혹은 배우자-자기와 배우자 이외' 차원이 추출되었는데, 이 차원의 한 극인 자기 혹은 배우자는 관계 내적 귀인에 해당하고, 다른 극인 자기 혹은 배우자 이외는 관계 외적 귀인에 해당된다. 이 결과는 한국의 부부들이 배우자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양자관계를 기준으로 내외를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에서는 개인 단위와 함께 양자관계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자공동-양자공동 이외' 차원이 추출된 점도 양자관계의 관점에서 두 요소가 단일 극에 함께 포함된 구분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

해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은 개인수준의 내외귀인 외에, 관계수준의 내외귀인, 및 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 모두가 원인이 되는 양자공동귀인의 측면에서 다루어wu야 함이 제시되었다.

셋째, 연구 1에서 귀인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족에 대한 애정과 배려 때문에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을 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친인척의 행동과 이와 관련된 사회환경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관계를 이루는 개인의 관점에서 양자관계에 초점을 두는 서양 문화와는 달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대인적 관점에서 양자관계를 인식하며, 확장된 사회망 또한 양자관계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 2에서는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안정귀인(예: Passer et al., 1978)이나 전반귀인(예: Baucorn et al., 1982) 및 의도귀인(예: Camper et al., 1988)들이 주된 귀인차원으로 추출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행동 원인을 배우자가 누구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귀인 대상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부부들은 배우자 행동의 발생 원인을 다룰 때 그 행동이 누구 때문에 발생되었는지의 소재에 관한 추론을 그 원인이 안정적인지, 결혼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의도된 행동인지에 관한 추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차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는 행동의 대상으로서 관찰자 입장에서 상대방 행동의 원인을 다룬 연구이다. 따라서 얻어진 귀인내용과 차원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귀인차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Passer 등(1978)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의 귀인차원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행위자 입장과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귀인차원이 일부 다르다. 즉 행위자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의도가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관찰자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상황

또는 상태 측면에서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해석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 행동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 행동의 귀인차원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점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1에서 귀인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행위자귀인이 다른 귀인보다 많아서 기본귀인오류를 보였는데, 이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nes와 Nisbett(1972, p.80)은 타인들의 행위들은 안정된 개인적 성향에 귀인하는 반면, 자신의 행위들은 상황적 요인들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행위자-관찰자 편향을 주장한다. 따라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행위자 입장과 관찰자 입장에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귀인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 행동내용의 고려 없이, 주로 다루어지는 귀인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차원으로 요약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행동 사건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귀인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행동인지에 관한 정보가 귀인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에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행동 사건들을 차원으로 요약해서 주된 행동들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귀인차원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 1에서 부부들이 많이 지적한 행동 사건들을 추출해서 차원으로 요약한 후 주된 행동들 별로 귀인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를 토대로 시도될 수 있다.

넷째, Wong과 Weiner(1981)나 Holtzworth-Munroe와 Jacobson(1985)은 부정적 상황이나 기대치 않은 사건에 접하게 되었을 때 원인 탐색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본 연구 1에서는 부정적 행동사건(빈도: 590) 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사건(597)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원인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이 결과를 부부들이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로 행동의 발생 원인을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둘째, 이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부부들이 긍정적 행동의 원인을 기술할 때에는 대부분 극히 좋거나 매우 좋았던 행동을 고려한 반면에,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기술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나빴거나 약간 나빴던 행동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의 평가 수준(좋거나 나빴던 정도)에 따라서 원인 탐색량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 1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주된 귀인내용이 상당히 달랐다. 이 결과는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귀인차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많이 지적된 대표적 귀인내용들을 독립적으로 고려한 귀인차원 연구를 통해서, 연구 2에서 얻은 귀인차원이 행동의 평가 방향과 관계없이 일반화할 수 있는 귀인차원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이경성 · 한덕웅 · 강혜자(1995).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65-84.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38.

최상진(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29-244.

한덕웅(1996).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한덕웅 · 이상욱(1988).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다면 · 인과적 접근. *사회심리학회지*, 4(1), 111-154.

Camper, P. M., Jacobson, N. S., Holtzworth-Munroe, A., & Schmalings, K. B.(1988). Causal attributions for interpersonal behaviors in married coup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95-

209.

Fincham, F. D. & O'Leary, K. D.(1983). Casu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42-57.

Fincham, F. D.(1985). At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J. H. Harvey, & G. Weary (Eds.), *Attributions: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pp. 203-234). Academic Press.

Fletcher, G. J. O., Fincham, F. D., Cramer, L., & Heron, N.(1987). The role of attributions in the development of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81-489.

Holtzworth-Munroe, A., & Jacobson, N. S.(1985).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When Do They Search for Causes? What Do They Conclude When They D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398-1412.

Jones, E. E., & Davis, K. 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pp. 219-266). New York: Academic.

Jones, E. E., & McGillis, D.(1976). Correspondent inference and the attribution cube: A comparative appraisal. In J. Harvey, W. Ickes, and R.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1*.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Jones, E. E., & Nisbett, R. E.(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pp. 79-9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 on motivation(Vol. 1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1973).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American Psychologist*, 28, 107-123.
- Kruskal, J. B.(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 1-27.
- Kyle, S. O., & Falbo, T.(1985).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tress and attributional preferences for own and spous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 339-351.
- Newman, H. M.(1981). Communication within ongoing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9-70.
- Orvis, B. R., Kelley H. H., & Butler, D.(1976). Attributional conflict in young couples. In J. H. Harvey, W.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al research*(Vol. 1, pp. 353-386). Hillsdale, NJ:Erlbaum
- Passer, M. W., Kelley, H. H., & Michela, J. L.(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Causes for Negative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51-962.
- Schriber, K. G., Larwood, L., & Peterson, J. L.(1985). Bias in the attributio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717-721.
- Silars, A. L.(1985).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elationships. In W. Ickes (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pp. 277-305). New York: Springer-Verlag.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ong, P. T., & Weiner, B.(1981). When people ask "Why" questions, and the heuristics of attributional 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650-663.

Attribution Dimensions of Spouse's Behavior in Marriage

Kyung-Seong Lee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taxonomy of causal attributions appropriated for marital relationship. Study 1 examines the content of spouses' causal attributions most common in marriage and the relevance of the direct attribution inducing method which was used to investigate causal attributions. Attribution data from 338 married people were classified into 183 attribution categories through content analysis. A frequency analysis of 183 attribution categories showed that the actor attribution had the highest frequency for both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 of spouses, followed by the third parties/circumstances/stimulus attribution, the self attribution that is the object of the behavior of spouses, and the attribution to both sides. In order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direct attribution inducing method, two attribution inducing methods, a direct method in which an actor directly described causes for the behavior and an indirect method that extracted attributions from the data of thoughts or feelings that arose spontaneously when partner behavior occurred, were used. .72 agreement rate on attribution category was achiev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methods. Study 21 investigates dimensions underlying attributions derived from study 1. First, among 183 attribution categories, 70 term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frequency and representativeness for each category. Then 69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classified them into 10 categories according to similarity of meaning.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of these data showed three dimensions(stress=.07, $R^2=.96$). The interpretation of these dimensions was guided by data from 60 additional subjects who rated the 70 causes on 24 bipolar scales. As a result, the first dimension was interpreted as 'self or spouse-other than self or spouse'(relationship-other than relationship), the second as 'spouse-other than spouse' and the third as 'both sides-other than both sides'.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each dimension acquired from the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was relevant. Finally,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issue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ies were mentioned.

부록 1. 70개 귀인 용어에 대한 3차원 분석 결과

문항번호	귀 인 용 어	차 원		
		1	2	3
01	나의 기본 때문	-1.21	-1.48	.63
02	둘이 연령 차이가 있어서	.72	-.71	-.69
03	배우자가 부모에게 한 행동 때문에	.10	.85	.74
04	서로 자라는 환경이 달라서	1.04	-.98	-.13
05	배우자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35	.66	.92
06	배우자가 나와서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30	1.44	-.64
07	당시의 상황/분위기 때문에	1.08	-1.14	1.00
08	배우자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78	1.43	-.88
09	내가 같이 화를 냈기 때문에	-1.18	-1.45	-.18
10	두 사람이 모두 노력했기 때문에	.73	.84	-1.96
11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04	-.59	-1.40
12	배우자가 가족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10	.81	.74
13	배우자가 나에게 대한 애정이 없어서	-1.00	.73	-.33
14	술 때문에	1.08	-.97	1.07
15	자식(들) 때문에	1.57	.15	.89
16	운 때문에	1.83	-.55	.94
17	배우자가 철이 들어서/덜 들어서	-.66	.65	.98
18	두 사람과 가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 때문에	1.47	-.11	1.30
19	사회(직장)생활 때문에	1.47	-.27	1.34
20	시댁(처가)식구들 때문에	1.50	.10	.56
21	나의 습관/버릇 때문에	-1.12	-1.43	.39
22	나의 심리 상태 때문에	-1.30	-1.57	.67
23	배우자의 기본 때문	-.65	.59	1.21
24	배우자의 능력 때문	-.60	.65	1.20
25	성격이 서로 달라서	.53	-.74	-.69
26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16	.90	-1.92
27	배우자의 습관/버릇 때문	-.63	.46	1.12
28	배우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92	1.10	.29
29	배우자가 나에게 무관심해서	-1.09	.73	-.31
30	내가 배우자에게 무관심해서	-1.52	-.95	-.43
31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서	-1.09	.83	-.18
32	내가 배우자를 무시해서	-1.56	-.96	-.34
33	경제적 문제 때문에	1.59	-.65	.99
34	동료(친구)들 때문에	1.58	.05	1.36
35	자라는 환경 때문	1.19	-.91	.25
36	당연/도리이기 때문에	1.58	1.00	-.61
37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35	1.61	-1.00
38	나의 신체 상태 때문	-1.38	-1.43	.55
39	배우자가 가족을 사랑해서	.47	1.37	-.03
40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39	.60	-2.07
41	배우자가 나를 생각해서	-.65	1.60	-.92
42	나의 취미/취향/선호 때문에	-1.24	-1.34	.37
43	내가 시집(처가)식구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06	-1.17	.58
44	배우자의 당시 심리 상태 때문	-.63	.52	1.09
45	사고/위급 상황이어서	1.11	-1.07	1.19
46	배우자의 성격 때문	-.62	.59	.97
47	가정 환경 때문	1.46	-.97	.38
48	나의 성격 때문	-1.22	-1.46	.36
49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싫증을 느껴서	.10	-.65	-1.36
50	서로 간에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23	-.71	-.98
51	둘 간의 관계가 원만해서	.26	.60	-2.22
52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15	.77	-2.19
53	두 사람 상호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05	-.60	-1.41
54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서	-.72	1.40	-.97
55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1.30	1.24	-1.23
56	그런만한 사정이 있어서	1.38	-.94	1.06
57	배우자가 가족이 잘되기를 원해서	.29	1.51	-.04
58	나의 능력 때문	-.99	-1.44	.78
59	배우자가 의무감/책임감 때문	.40	1.51	-.19
60	두 사람의 선호, 취향이 같아서/달라서	1.34	-.64	-.92
61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29	1.18	.20
62	배우자의 신체 상태 때문	-.76	.50	1.26
63	내가 배우자에게 한 행동 때문에	-.85	-1.38	.73
64	시댁(처가)식구와 함께 살아서	1.53	.14	.76
65	내가 원해서/요구해서	-1.50	-.71	-.52
66	배우자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70	.89	-.08
67	부부 간에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	1.21	1.27	-1.18
68	배우자의 취미/취향/선호 때문	-.63	.66	.75
69	둘이 싸워서	.41	-.77	-1.28
70	내가 변해서	-1.56	-1.20	-.36